

예수수난(성지)주일

기도서 P. 275 B해

제1독서(이 사 50. 4-7)
제2독서(필립 2. 6-11)
복음(마르14. 1-15, 47(15: 1-39))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칼 문



나는 못 난 이

박 병 준 신부

오늘은 성지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빨마가지와 그들의 옷을 길위에 깔면서 그분의 입성... 환영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환호소리 우렁차게 입성하시지는 그분의 모습에 온 예루살렘이 술렁인다. 제자들은 그분의 좌우에서 그분을 우위하며 우쭐댄다. 그러나 웬걸! 그토록 추앙받던 그분은 며칠 밤 사이에 흉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얼굴에 칠패음을 받아가며, 이마에서는 피와 땀이 뒤범벅이 되어 흐르고 어깨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가야 하는 중죄인이 되신다. 어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을까? 어찌까지만해도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이고, 항상 그분 곁에서 그분을 호위하던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분을 보라. 완전히 병어리가 되어 버리셨다. 한번쯤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번쯤은 자신을 배신한 군중들을 책하고,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꿀먹은 벼어리도 아니고, 순한 양도 아닌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쓰기 위해서, 조롱과 칠패음을 받기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모양이다. 배짱 한번 두둑한 분이냐.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침착하실까? 세상에 저런 못 난 이도 있을까?

2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분처럼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분을 따르려는 못 난 이들을 종종 본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분은 역적으로 모함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못 난 이가 되셨다. 오늘도 그분을 따라서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생활을 하려는 자, -진리와 자유를 옹호하려는 자들은 이상하게도 그분처럼 역적으로 휘둘리고 못 난 이가 되고 있다. 그들은 모진 고문을 즐겨 받고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다.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보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난 이가 되려는 자들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처럼 얼마나 애덕실천이나 희생과 봉사에 솔선수범하고 있는가? 특별히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내자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 예수님은 내 잘못까지 짚어지시고 칠패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오히려 그분이 맞보신 고통과 슬픔과 십자가는 외면하기만 했다. 내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 노력했고, 그분이 주는 은총과 축복만을 좋아했다.

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그분을 닮아 못 난 이가 되는 길, 내 이웃에 사랑과 봉사과 희생을 하는 길, 내 형제의 고통을 나누고 그 고통이 줄어들도록 노력하는 길, 나아가서는 그분처럼 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분을 닮아 못 난 이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그분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자. 나는 못 난 이입니다.

(함열 천주교회 보좌신부)



호 산 나!

현대의 우상인 핵(核)이 문제를 터뜨렸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건물은 가만 놔두고 사람만 깨끗이(?) 죽여버린다는 중성자탄에 관한 보도가 있었을 때 피난 보따리를 꾸민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자 미국에서는 피난 보따리를 꾸려 꾸역꾸역 고속도로를 달렸고, 대통령까지도 현장에 나와 대책을 숙의했다 한다. 그나마 소위 자유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되니 그만큼 보도가 되어 시민들이 나름대로 대책에 참여하게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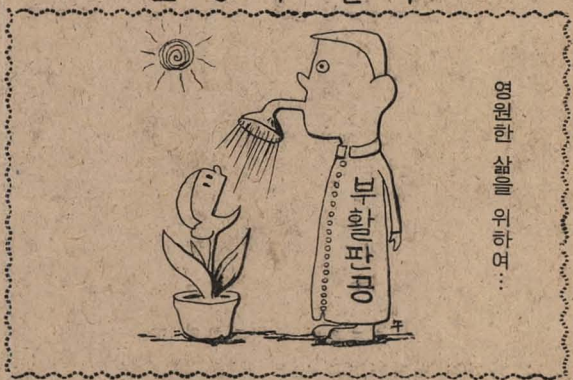
일본에서도 점점에 나섰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 한다.

조화의 깨짐이 얼마나 큰 위협을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수많은 핵실험이 이상기온 현상을 나타냈고, 농약의 과다사용은 천적(天敵)을 없애 더 큰 해독을 가져왔으며,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는 기형 물고기를 낚아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생활을 풍요하고 편리하게 해준 것은 사실이다. 국가의 정당한 권위는 국민들을 보다 편안하게 살게 함도 사실이다. 일한 땀에 합당하게 분배되는 부(富)도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올바르게 행사되는 성(性)은 가정의 행복과 인류의 번성을 보장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부문에서 조화가 깨트려져 있고, 또 깨트려져 가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주제할 수 없는 부조리들인 것이다. 노동문제, 농촌문제, 청소년문제, 물가문제, 정치질서문제...

오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당신은 무엇을 그의 발아래 깔아드릴 것인가? 아니면 몇일뒤에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칠 것인가?

숲 정 이 산책





# 그리스도를 닮은 바보

나 춘 성(스테파노)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무척이나 망설이다가 이 글을 씁니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 안녕하시겠지요. 군대에 있을때도 편지를 하지 않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쓸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래?” 물으셨을때 저는 항상 “대장!”이라고 대답하곤 했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더군요.

어머님께서도 당신의 첫 아들인 어린 나의 형을 잃고 슬픔에 잠기셨다가 다시 아들인 저를 낳으시고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머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겠지요. 대장이 되겠다던 놈이 신랑도 아닌 신부(神父)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지금도 어머님을 생각하며 책상 앞에 앉아 있을때면, 그때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는 말에 식음을 전폐하시며 누워 계시던 부모님! 조부모님!

용돈을 절약하셔서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가지고 계시다가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시고 “바보 같은 놈! 너같은 애한테는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라고 꾸중하시던 외할아버님! 그리고 차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비를 주시지 않아 절절대던 일등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러나 어머님! 이 길은 제가 「나갈 길」입니다. 제 앞에 놓인 무수한 갈림길 중에서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벌써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도 반대하시던 신학교에 입학한지도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를 화제의 주인공으로 삼아 떠들어대던 친척들도 이제 관심을 별로 두지 않더군요. 지난해에 제 대하고 인사하러 다녔을 때 “이젠 군대도 갔다왔고 나이도 들었으니 선보려 다녀야지.”하며 말씀하시는 할머님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친척들은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지쳐 도중하차 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 저는 죽어도 여기 신학교에서 죽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들던 “이것이 나의 무덤이다”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온갖 잡념속에서 진로를 바꾸어 보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만 지금 생각하니 모든게 나 이어린 뜻이었고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사명감이 없었던 때문인것 같습니다.

어머님! 요즘에도 슬며시 초 사흘날이면 큰 아들 신학교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벽 해놓고 빌지는 않으시겠지요. 얼마전에 어머님께서 저한테 “기왕지사 한번 입학한 이상 집안 창피 떨지 않게 꼭 신부가 되어 나오라”고 하신적이 있으셨으니까요. 어머님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신 것을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끊임없는 저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집안을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첫 단계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춘환이는 군에 입대하여 군인성당에 나가고 있다는군요.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충분히 영세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당에 가자고 해도 안나가면 병식이요 요즘에는 자진하여 주일에 미사 참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있으면 우리 식구 모두가 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성체를 함께 받아 모시는

## □ 사순절토끼 봉헌예절(공소용)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토끼를 각 공소에서는 금주간에 공소회장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봉헌합니다

1. 시작기도...주의 기도 또는 자유기도
  2. 성서봉독...골로사이 1장 24-29절
  3. 간단한 강론 또는 묵상
  4. 성소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P 82
  5. 사순절 토끼 봉헌
  6. 마칠성가...공소 실정에 맞게 선택
- ※ 봉헌된 토끼를 부활대축일에 공소회장은 본당에 봉헌합니다.

영광이 주어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머님!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지난 2월말부터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여 이 기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수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수난을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의 눈길을 돌리는등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신봉하시는 불교와는 다른 점이 우리 천주교회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비친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저 역시 많은 시간이 걸렸듯이 어머님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머님! 신자들의 집이나 성당에 가면 볼 수 있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어린 날을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 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모님을 귀빈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마태오 20장 26~27)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열실한 성(聖)가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만수무강 하십시오.

춘 성 올림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러이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을 마치며□



### 내가 바라는 사제상

김 경 수

사제란,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에 의하여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인물이다.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행위를 현존시키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되어 위탁받은 말씀을 권한을 가지고 공적으로 전하며, 사람들에게 그 충분한 은혜를 체험케 하며, 또한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분열하지 않고 교회안에 머물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다.

특히, 합리적이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을 위해 사목현장에도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하여, 마음이 빈곤한 사람·무지한 사람·병든 사람들에게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은총을 베풀어 우리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모범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제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세를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미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천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그 때문에 종교와 신앙을 누구보다도 고귀한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 고귀성을 짓밟는 인간들을 "인간이나"고 한탄하기 보다는 그렇게 되어지는 현세의 모든 일들을 한없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의에 유린당하는 정의를 보는데서 오는 증오라기보다도,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의 발밑에서 부서지는 가치의식의 두려운 결과에서 오는 증오인 것이다.

본래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 신랄하고 의로운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또한 가난과 겸손과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세속적인 권세나 국가의 권력과 비교한다면, 사자앞에 어린양 같은 것이 종교인 것이다. 또한, 물질과 세속을 표준으로 해서 본다면 무엇에 비교할 수도 없으며, 명령할 지위라고는 한가지도 갖추지 못한 것이 종교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종교가 그 본연의 위치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종교는 그 본래의 정신적 위치를 충분히 지키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종교가 세속적인 지위와 명성, 그리고 현대의 우상인 부(富)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이미 종교는 그 구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하게 살기로 하자. 그리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스도는 한평생을 목수로 살았다. 그 당시에도 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들은 직업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몹시 멸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그의 가난을 가지고 오히려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 그것은 돈이나 권세보다 몇배나 고귀한 인생의 진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기원한다. 주님의 사제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모범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이렇게 해서 사랑에 눈뜨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이 사순절에 기도한다.

### 요심이 (297) 김병오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매

### 태 광 사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아크릴 · 아취 · 실내장치 · 각종간판  
페인트 · 집철 · 카메라 대여 DP&E

###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③ 1585

◎ 감초당 약국 앞

금 · 은 · 보석 · 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성(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252

★ 양심을 찾자 ★

현대 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자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주단 · 포목 훈수 이불감 도산매

### 유진상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완 태(바오로)

전화 : 5821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1. 금주일은 성주간

- ① 성 목요일...성유 축성미사(※ 중앙성당, 11시) 주교님 집전, 주의 만찬 저녁미사
- ② 성 금요일...예수 수난(말씀의 전례, 십자가의 경배, 영성제)
- ③ 성 토요일...부활 성야(빛의 예식, 말씀의 전례, 성세 예절, 성찬의 전례)

#### 2. 노퍽 피해 보상 촉구 기도회...9일<월> 오후 2시, 고산성당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3. 교리교사 연합회 대의원회...22일<월> 11시~3시(공문 참조 바람)

- 사제양성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부활 대축일에 하얀 토끼를 분당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 숲정이 편식실 전화복기 성금, 감사합니다...중앙 예비신자 장상준 5천원

####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웅 복  
3874 보좌 신부 정 태 렷  
사도 회장 이 태 북

1. 구리아 : 8일<월> 오후 2시
  2. 성유 축성미사 : 12일<목> 오전 11시
  3. 판공성사 일정  
10일<화>-금암동·인후동, 11일<수>-진북동·경원동  
12일<목>-서노송동·중노송동, 13일<금>-고사동·태평동, 14<토>-학생·기타  
(교백성사시간 : 오후 3시~저녁 8시)
  4. 주의 만찬미사(12일), 주의 수난예절(13일), 부활 전야미사(14일) : 저녁 8시
  5. 사제 양성 후원 저금통 : 예수부활(15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 206,960원

####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1. 성지주일 : L.M 간부회(10시미사 후)
  2. 분당 사무감사 : 10일 많은 신자 참석바람
  3. 수요기도회 : 11일 밤 8시
  4. 성 삼일행사  
성 목요일-12일 밤 8시 주의 만찬 및 성체조배  
성 금요일-13일 밤 8시 주의 수난예절  
성 토요일-14일 밤 8시 망부활예수 불축성 및 영세수축성
- 지난주 봉헌금 : 66,490원

####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박 중 심  
사도 회장 김 성 립

1.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신우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3. 분당 판공성사 일정안내  
인후동-10일, 중노1가-11일, 중노2가-12일, 우아동-13일, 남노송동-14일  
학생들의 성사일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된 구역별 일정에 보세요
  4. 성 금요일 전례행사 안내 : 13일<금> 오후 3시 주교님께서 집전함, 많은 신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교무금 신임을 아끼 못하신 분은 판공성사해 사무실에서 꼭 신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87,715원

####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갈 노

1. 성 금요일 : 4월 13일, 단식과 금육제 (이날 단식제 성금은 교구청에 납입합니다)
  2. 성모회 월례회 : 4월 15일
  3. 토끼 저금통을 4월 15일 부활주일까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4월 15일 예수 부활주일 미사는 평주일과 같음
  5. 성주간 행사안내  
4월 12일 오후 7시30분, 세족례-예수 만찬미사  
4월 13일 오후 7시30분, 십자가의 길-영성체식  
4월 14일 오후 7시30분, 예수부활전야제
- 지난주 봉헌금 : 144,280원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1. 미사시간 변경 : 주일-오전 6시·10시, 오후 3시·8시 평일-오전 6시·8시, 금요일-오전 6시·10시(저녁미사 없음)
  2. 예비자 교리시간(영세자 특별교리)  
9일·10일 저녁 8시 영성제-14일
  3. 분당판공 : 9일·10일-덕진동, 11일·12일-금암동  
13일-팔복·중천동, 14일·15일-성사없음
  4. 부활맞이 대청소 : 8일 미사후, 많은 참석 바람
  5. 사제양성 토끼 잘 먹여 부활때 봉헌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26,155원 교무금 : 173,710원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유  
보좌 신부 김 기 석  
사도 회장 김 영 중

- ☆ 성주간 : 위탁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간
- 1. 자모회 : 부활주일 공식미사 후
- 2. 성화회 : 10시미사 후
- 3. 장우회 : 저녁미사 후
- 4. 성가정회 : 월요일 오후 2시
- 5. 판공성사(8일~14일까지 오후 2시에서 밤 12시)  
<일> : 중·고생과 직장인 <월> : 동·서교동,  
<화> : 동·서완산동, <수> : 풍남동,  
<목> : 남노송동·전동, <금> : 중앙·경원·다가동  
<토> : 직장인
- 6. 성 목요일 밤 성체조배(성화회 주최)  
조배표는 별도 : 8시
- 7. 성 금요일 오후 3시 성로신공
- 8. 성 토요일 8시 성세수, 부활초 축성
- 9. 성주간 예비자교리 없음<수·목>

####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정경신씨 때)
  2. 판공성사 : 6일-다가동·태평동, 7일-진북동·고사동·중앙동, 8일-학생·직장인, 9일-완산동·화산동, 저녁시간 저녁 7시
  3. 성주간 예절  
성 목요일(12일)-주의 만찬미사(저녁 7시30분)  
세족례·성체조배·밤셀기도  
성 금요일(13일)-십자가의 길(오후 3시·저녁 7시30분)  
성 토요일(14일)-부활전야제 미사(저녁 7시30분)  
초 지참  
15일-예수 부활주일
  4. 청년회 : 매주<토> 오후 6시, 진전한 노래부르기-5시
- 지난주 봉헌금 : 190,420원

####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림

- ※ 교무금 ! 어린이, 중고학생 교리 !
  - 1. 그동안 살찌운 토끼 부활주일에 메고 나오세요
  - 2. 성 삼일행사  
성 목요일 저녁 8시-주교님 집전,  
성 금요일 저녁 8시  
성 토요일 저녁 8시(초 한자루씩 준비)
  - 3. 판공성사 못보신 분 부활전까지 꼭 보세요
  - 4. 젊은 여성의 모임 : 4월 20일<금> 7시30분
  - 5. 바오로회 :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67,895원